

## 언론중재위원회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지난 10월 5일 동아일보 30면(사설/칼럼란) 황설수설에 실린 육정수 논설위원의 ‘이상한 참교육’이란 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래서 우리회는 10월 20일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였다.

육정수 위원은 “참학’은 전교조의 반정부 노선 및 친북 좌파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상당수 교사가 중징계를 당하자 대응책으로 ‘참학’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는 건 결코 참교육이 아니다.”고 썼다. 정론을 지향하여야 할 언론이 전혀 사실과 다른 판단을 바탕으로 편견을 가지고 악의적인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어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판단하여 이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논설위원은 사회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그 일차적 임무이다. 그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여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육정수 논설위원이 편향된 시각으로 사실과 다른 글을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언론사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 육정수 위원의 글에 대한 우리회 입장

육 논설위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회를 전교조 들러리라고 공식적으로 폄하 발언한 것은 1만 여명의 전국 우리 회원에 대한 모욕이며 시민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갖지 못한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자율성과 주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활동하는 우리 회원들이 들러리를 설 때는 그 자율성과 주체성을 압도할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유인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회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교육비와 경쟁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교육현실이다. 그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면 우리회는 주체적이고 자

발적으로 ‘누군가’와 연대할 것이며 구차하게 들러리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다. 20년 역사를 가진 교육시민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글을 읽고 전국에 뿌리는 동아일보의 행태는 언론 남용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오히려 동아일보와 육 논설위원은 언론남용을 통해서 누구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 시험지옥 교육현장을 살펴보자

육 논설위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제고사 거부하는 전교조 들러리라는 무리한 등식을 들이밀면서, 교묘하게 현 교육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육 논설위원이 참 언론인이라면 일제고사를 앞둔 학교현장을 찾아 그 참담한 분위기를 살펴볼길 바란다. 공부와 시험이 반복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글에 죽음에 대한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육 논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로서 이런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회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육 논설위원은 우리가 아이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고 있다고 거칠고 섬뜩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육 논설위원을 포함한 동아일보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육 논설위원은 우리회가 “헌법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모든 학생을 능력과 무관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평등교육’을 주장하면서 경쟁교육에 반대해왔다.”라고 헌법 31조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면서 법 지식을 가장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헌법 31조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성적이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육 논설위원은 경쟁교육은 좋은 것, 평등교육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해석을 하면서 언어 이데올로기를 고착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과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이 10월 15일 오전 11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일제고사파행사레고발기자회견] 전국일제고사에 대비하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시험 하루 전날인 10월 12일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층에서 거행하였다.

학생들은 전교조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일제고사로 인해 시험과 점수에만 매달려 문제지 풀이만 반복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운영되고, 초·중·고등학교까지도 밤 늦은 시간까지 시험대비를 시키고 학교 평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뒤쳐지는 아이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등 반교육적인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꾸어보고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다. 이를 두고 누구의 도구로 내주었다고 하는 건 우리회와 회원뿐만 아니라, 시험거부를 선택한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결정을 폄하한 것이다.

###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 9.2 [공동기자회견] 교과부의 학부모교육 선진화방안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9.8 [성명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교육국' 신설 관련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9.26 [공동기자회견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와 고발 취하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청원합니다
- 9.29 [공동기자회견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
- 9.30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무상 급식 및 무상 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 10.11 [보도자료] 일제고사 전국파행 사례고발 기자회견 안내 '일제고사, 너를 고

발한다'

- 10.13 [성명서] 수능성적공개, 고교서열화에 앞장서고 있는 교과부와 조전혁 의원,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 10.14 [보도자료] 수능성적 공개 관련 조전혁 의원 검찰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
- 10.15 [기자회견문과 고발장] 조전혁 의원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
- 10.20 [보도자료]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회 명예를 훼손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 10.26 [공동성명서] 정치권은 조속히 심야 학원 금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 10.29 [논평]헌법재판소의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금지조례"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무효다.

### 이달의 주요기사

0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학교 안의 먹물거리

04 교육자치

2010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05 정책

입학사정관제

06 기획특집

2010년 교육예산

08 지부·지회소식

지부·지회소식

10 지부지회 소모임  
고양지회 풍물패

11 상담실

학교와 마찰을 빚는 고1 아들

12 학부모 한마당

학교 겁내지 말자

14 언론정보출판

교육부는 공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15 사설

수능성적 공개 파동과 외고 폐지 논란



〈편집자 주〉

그 동안 2년 여에 걸쳐 총29회 동안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달라지는 교육현장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때로는 실패담이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의 앞날을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현장의 변화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

야기를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부터는 우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의 의미와 개선책을 살펴보고, 한 발 앞서서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도서관에서 미래를 찾다

현대사회를 지식기반사회 또는 정보사회라고 한다. 지식정보가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에 지식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도서관에 있는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여 정보활용능력을 기르고 문화를 향유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평생학습사회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바른 자세가 아닐까 한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공공도서관이 미래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다.

## ...▶ 야간연장개관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현재 전국의 200여 도서관에서 야간연장개관을 하고 있다. 낮 시간에 도서관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료열람실은 밤10시까지, 일반 열람실은 11시까지 운영하며, 다양한 야간 문화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고 이용률도 높아 야간연장개관을 하는 도서관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 도서택배대출반납서비스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집으로 책을 배달해주는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독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무료도서택배대출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도 택배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물론 먼저 구비서류(신분증, 택배대출신청서 등)를 갖추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도서를 무료택배대출 해주는 도서관도 생겨나고 있다.

원하는 자료가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 도서관에 신청하여 자료를 빌려다주는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지식이나 학습정보를 물어보면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답을 제공하는 ‘사자에게 물어보세요’ 등은 점차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가정환경이나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다.

## ...▶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난 여름 휴가 일주일을 몽땅 도서관에서 보내는 이용자가 있었다. 그 분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좋은 피서가 없다고 했다. 시원하고, 경제적이며, 원하는 건 모두 갖춰져 있어 앞으로도 휴가를 계속 도서관으로 오겠다고 했다. 이처럼 도서관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읽을거리, 볼거리, 할거리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책’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위한 철학, 종교, 사회·자연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책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단행본 뿐 아니

라 잡지, 신문 등도 최신간은 물론 지난 호까지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찾는 책이 없을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희망도서신청 코너에서 신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 정리해서 신청자에게 먼저 빌려가도록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

책 외에도 디지털자료실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듣고, DVD를 통해 영화를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청각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좋은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해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각종 전시회를 열거나 전시실을 개인에게 대여해 주기도 하고, 음악회, 강연회, 문화체험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책함께 읽자 정기낭독회 등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교육적인 공간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고객을 위해 특별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어린이열람실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아기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책 읽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북스타트 운동, 스토리텔링, 1일 독서교실, 방학독서지도, 독서치료, 독서회 등 어린이들의 독서의욕과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어릴 때부터 도서관 이용과 책 읽는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학업 성적은 물론, 사고력과 창의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빌 게이츠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의 작은 공공도서관이었고 책 읽는 습관은 하버드대학의 졸업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매



우 취약하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644개로 인구 7만7천명당 하나 꼴이다. 가까운 일본이 인구 4만여 명에, 미국이 3만여 명에 하나 꼴인 것과 비교해도 훨씬 부족하다.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 수도 1.18권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은 2013년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900개관으로 확충하여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를 5만명 수준으로, 인구 1인당 장서수도 1.6권 수준으로 향상시켜 도서관서비스를 향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자료와 정보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주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도시락이라도 싸서 도서관 정원에서 김밥이라도 먹으며 가을의 낭만도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영화를 보거나 주말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고, 도서대출회원증을 만들어 돌아오는 길엔 좋아하는 책도 한 아름 빌려오면 마음이 뿌듯해질 것이다. 혹시 처음엔 기대한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가다보면 이용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도서관이 주는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김선희(정독도서관 자료봉사과장)

## 주요 국가 공공도서관 현황 비교

국가	도서관수	1관당인구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기준년도
한국	644	76,926	58,322,464	1.18	2008
미국	9,208	31,773	807,246,000	2.8	2006
영국	4,567	13,266	103,166,250	1.7	2006/2007
일본	3,111	41,144	356,710,000	2.8	2006
프랑스	4,319	14,077	152,159,000	2.5	2005
독일	10,339	7,980	125,080,000	1.5	200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8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다

‘답쟁이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은주(가명)예요.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셔서 저는 학교에서 수학을 더 잘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2009. 7.13 월요일 은주올림’

7월 한창 덥던 어느 날 은주가 나에게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손에 꼭 쥐어주고는 “선생님 제가 가고 난 다음에 펴보세요! 꼭이에요! 꼭!” 이렇게 다짐을 하고는 손에 쥐어 준 편지에 있던 글이다. 남들이 들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눈물이 왈칵 나올 뻔 했다. 또다시 ‘작은도서관 만들기 정말 잘했어!’ 를 속으로 외치는 순간이었다.

쌍문1동 쌍문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생글도서관’에서는 매주 월요일 3시 아이들과 수학공부를 한다. 대체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우리 도서관의 아이들은 수학공부를 좋아해서 스스로 선행을 하며 질문거리를 만드는 은주에서부터 분위기에 휩쓸려 수학을 너무 싫어하면서도 공부하겠다고 한자리 차지하는 동혁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한다.

도서관이라더니 웬 공부방?이라는 질문을 한다면 “도서관은 원래 이런거야!” 라고 말하고 싶다.

동혁이네 형제는 쌍문초등학교 주변을 휩쓸고 다니며 놀기 좋아하는 소문난 악동들이다. 이 형제는 우리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기억이 별로 없다. 늘 소리치고 장난치는 것이 이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이다. 어느 날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 놀다가 도서관 문을 열어젖히며~ 운동화를 휘리릭 던져 벗어 놓고는 들어와 정수기 앞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그리고는 “선생님! 안녕히 계

세요!” 외치고는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런 순간에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뿌듯하다. “도서관? 원래 이런거야!” 또 말하고 싶다.

지금의 생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2007년도 봄에 만났다. 구체적인 지역사회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그러나 도서관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던 우리였지만 과감히 시작을 했다. 2007년 12월 개관식 날 사진을 들여다보면 쪼그맣고 귀엽던 아이들이 훌쩍 커버려서 이제는 선생님들과 키가 비슷하기도 하다. 아이들은 키도 크고 많은 성장을 했다. 성격이 거칠던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마음을 순화시키기도 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무언가를 하기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어울리기도 한다. 그런데 성장한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많은 성장을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책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 읽는 것을 즐긴다.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늘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고 책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해 주신다. 그 속에서 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도서관은 이런 곳이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엄마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모두가 입 모아 말한다. 맞는 말이다. 도봉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봉도서관, 아이나라, 도봉정보문화센터 이렇게 큰 곳들이 몇 군데 있지만 도봉도서관은 덕성여대 앞에, 아이나라는 창4동 아파트단지예, 도봉정보문화센터는 창1동 언덕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큰



접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특히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야하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생글도서관 같은 작은 도서관이 집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만으로 오롯이 그 역할을 다하기는 쉽지 않다. 관에서는 커다랗고 멋져 보이는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렇게 작은도서관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단순기능에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하고 엄마들이 성장하고 선생님들이 성장하는 곳이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이렇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작은도서관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래본다.

성지윤(생글 운영위원)

## 나의 홈스쿨링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나는 올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원래 중학교 1,2학년 때는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나를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더 넓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번 나의 중3이 되는 2009년은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다.

난 이번 1년이 어찌면 제일 인상 깊고, 의미 있는 1년일지도 모른다. 물론 대안학교를 다닌 2년이 의미가 없었다는 건 아닌데, 확실히 어떤 보호 받는 소속이 가족뿐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회에 맨 몸으로 부딪치는 경험을 많이 하니, 나의 자아도 많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인상 깊은 추억과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나도 이렇게 내가 정말 뜻 깊다는 1년을 지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바쁘게 지낸 것도 처음이다.

처음 홈스쿨링을 시작했을 때에는 ‘성취 포상제’ 활동(+봉사활동)과, 대학로에 있는 ‘사다리 연극’이라는 연극놀이 활동도 했다.

‘탁틴내일’이라는 센터에서 진행되는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라는 프로그램(4종목을 자신이 계획 세우고, 실천을 하고, 그런 점수가 모이면 포상을 받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봉사활동 종목이 있어서, 백석동에 있는 ‘열매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초등학교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시작한 게 벌써 8개월이 다 되어간다. 봉사라는 자체의 그런 활동은 나에게도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또 나보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놀면서, 내가 오히려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더 값진 경험도 없다는 생각도 하고 말이다.

연극은 나에게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내가 맡은 역을 연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배역이 되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소통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연극부도 들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다. 아무튼, 연극을 하면서 또 다른 일 만큼 경험하고,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9월부터는 ‘민들레’라는 곳에서 출판 프로젝트와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되었다. 출판 프로젝트는 내가 항상 글에도 관심이 있고, 꿈도 연관이 있어서 올해에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다. 출판 프로젝트에서 내가 있는 팀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난생 처음 자서전도 쓰고,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도 쓰고, 등등 글 쓰는 작업이 많다. 또 팀끼리 하나의 책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팀플레이에서도 조금씩 부딪치고, 같이 화합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또 배우는 게 있다고 느꼈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엔, 책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관계’라는 면에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새로운 아이들과 친해지고, 알아가고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민들레라는 곳은 나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공간인 것 같다.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내가 민들레에 와서

수업만 듣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관계도 맺고, 또 어떤 사회인으로써 함께 일을 하고,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하는 그런 기간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말 의미 깊은 경험이 또 하나 생긴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내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배운 건, 지금 이렇게 글로 쓴다고 해서 다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배운 것들을 모조리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내 인생에서 1년을 아무 소속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배우고, 또 느끼고, 경험 하고, 하는 건 또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번 1년이 어찌면 제일 인상 깊고, 의미 있다고 한 말도,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쉽게 오지는 못할 시간이고, 또 경험일 것 같아서다. 이것보다 실재론 더 많은 활동을 했다.(외플 장사 프로젝트를 해본 것, 출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와우 북 페스티벌에서 책을 팔아본 것, 등등) 그런 활동도 모두 나에게 정말 이번 1년에 뜻 깊게 남을 활동들이다. 아무튼, 내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그런 활동에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나를 곁에서 천천히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친구들, 또 그런 많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난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부모님에 의존하지 않고 내 꿈을 펼칠 것이고, 또 이를 것이다.

안소정(홈스쿨링 청소년)



# 제1회 교육자치 리더십학교를 다녀와서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우리회 주최의 ‘교육자치 리더십학교’가 대전 경하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육관련 활동가들이 모여 2010년 교육운동진영이 지방교육선거에 대한 입장과 임하는 자세 등을 정리하고 현재 지역현황에 대한 보고와 이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 같다.

교육자치 리더십 학교는 첫날 저녁 5시30분 저녁식사를 시작으로 개강식과 참석자 인사에 이어, 1강 “교육운동진영과 지방교육 선거 정치 참여”에서는 2006년 12월 졸속적인 법률 개정의 후과로 ❶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도 설계의 균형상실로 교육감은 독임형 집행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된 반면,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통합된 점 ❷ 교육위원회의 경우 제주도의 선례에서 보듯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분란에 처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점(표의 등가성 논란 등 포함) ❸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같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집행기관인 교육감까지도 위상을 격하시켜 ‘완전한 통합’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내년선거에서 집권여당과 정부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의 저지는 범민주진영이 내년 선거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약진을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범민주진

영의 체계적인 정당화논리 내지 ‘당론’ 마련의 과제가 내년선거와는 별개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과 시민사회운동에서 지도력이 검증된 인사가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대거 입후보하는 등 진보적 가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지방교육선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는 강이었다. 이어 제2강 “2010 선거구도의 전망과 전략모색”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며 2012년 양대 선거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점과 각 정당과 진영의 현황과 이에 따른 전략과 목표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에 이어 3강 “정책과 선거”에서는 실제 선거에서의 선거구도, 인물, 정책에 대한 이슈를 그간의 선거사례를 들어가며 어떻게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선거의 승패가 어떻게 갈려 왔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진행되었던 흥미로운 교육이었다. 이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교육선거 준비와 현황에 대하여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까지 10개 시도별로 진행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진행된 뒷풀이는 서로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둘째날 “최근의 여론동향과 여론조사 활용하기”는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이해, 여론조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점이 인상 깊게 남았다. 최근의 여론동향에서는 여론흐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계층별 정당지지도 분석자료 등을 통해 정당별 고정투표층등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여론조사 분석 방법과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일정은 참학 식구들만 모여 10.13~14 일제고사와 관련해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조직화 방안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고 지방교육자치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참학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제1회 교육자치학교의 짧은 일정의 긴 교육과 논의시간을 정리하였다.

양미경(양주시회 부지회장)

##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변화 과정과 우리회 입장을 정리해본다

1991년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 교육자치제도가 변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회의 대응 방안도 다양하게 변화를 겪어 왔다. 2000년 초부터 지방 교육자치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우리회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의견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2010년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전국 실시를 앞두고 지방 교육자치의 변화 과정과 이 제도에 대한 우리회 입장을 정리해본다. <교육자치위원회>

■ 91년 7월과 95년에 실시된 제1기, 제2기 교육위원 선거는 자치구 의회에서 2인(1인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5년 이상인자)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중 1명을 시의회에서 자치구별로 각 1인씩 선출(교육위원 정수의 1/2이상은 경력자)하는 소위 이중 간선제에 따라 이루어 졌다. 당시 교육위원의 상당수는 지방정치세력들로 구성되었다.

■ 97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98년 치러진 교육위원선거는 교원단체선거인과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은 위원장이 선거인단이 되는 체제로써 대다수 학교 운영위원장이 학부모 이면서도 학부모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보다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투표한 결과 교육위원의 다수는 퇴임한 학교장과 교육 관료들이 되었다.

■ 2002년, 우리회는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적극적인 선거 참여 전술을 채택하여 전국에서 6명의 학부모 후보(서울, 경북(안동), 인천 2명, 김해(경남), 충북(청주))가 출마하여 2명이 당선 되는 성과를 얻었다.

2002년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이 확대되었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시 우리회가 학부모를 대변할 학부모 후보로 전국에서 6명의 교육위원후보를 내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교육자치제도 시행 10여년은 교육 관료들의 자치였다는 판단과 학부모 스스로 권리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출마로 나타난 것이다. 안동의 경우 같은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3등을 하고도 경력자 1/2이상이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4등을 한 경력자에 밀려 낙선되는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박인옥 후보와 노현경 후보가 당선자의 자격상실로 뒤늦게 당선되어 활동을 하였다. 2006년 노현경(인천지부장)은 현재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

■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다시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확대 한다.
2. 교육감은 시도 지사 선거와 분리하여 선출하며(정당 공천이 아님) 출마 자격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5년으로 한다.
3.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와 통합하여 시도의회 특별 상임위

원으로 전환하고(통합), 시도의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정수의 1/2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2은 시도 의원 중에서 배치한다. 교육위원 출마자격은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10년.

4. 결국 교육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을 시기에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각각 1/2비율로 선출 했던 것을 통합하였으며 경력자 선출은 교육위원 이름으로 선출하고 비경력자는 시도 의원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통합되고 교육감은 시도에서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남았다.

이와 같은 통합 논의에 대해 당시 우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 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다. 그 일관된 입장이란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 관료들의 자치로 전락해 있어 개선되어야 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 확보, 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선행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006년 6월 우리회 학부모 신문 -

■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 선거로 교육경력자만 피선거권을 갖고, 학부모를 대변하는 학부모후보(비경력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된 현 제도에 대하여 대안 마련을 모색하여야 한다.

#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올해부터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기획되어 2007년 10개 대학에서 시범 실시된 입학사정관제는 2008년 40개 대학, 그리고 2009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추진 방침에 힘입어 90개 대학 25,000여명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100%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입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선발은 과연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어 온 지나친 점수경쟁에 의한 학생 선발을 지양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내신이나 수능성적보다는 학생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발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 90여개 대학에서 이미 치러진 입학사정관에 의한 대입합격자 발표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입학사정관제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의 발달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미국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으로 학생 선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한 건국대학교 양성관교수가 올해 6월, 미국에서 열리는 '입학사정관과 고교 진학 지도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입학사정관들이 주목하는 대학지원생들의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지원자의 출신고교, 그 지역의 특성, 인종, 부모의 직업과 교육, 가족사항에 대한 정보
- 지원학과와 희망직업, 특별활동에 대해 준비한 정도
- 고교성적 가운데 전체 석차, SAT성적
- 구체적 특별활동 내역, 수상경력, 고교에서 이수한 과목 가운데 대학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AP, IB 과목 등), 그 과목의 성적
-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 1, 2, 그리고 지원자가 다닌 고교의 대학진학상담교사가 작성한 지원자에 대한 추천 내용과 지원자의 성적표, 지원자가 다닌 고교의 특성, 2명의 교사 추천서, 지원자를 면접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

1920년대 초, 시작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의 발단은 당시 하버드, 콜럼비아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유대인 학생들의 입학률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유대인 입학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대학은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예일대학의 경우, 대학동문의 자녀가 1931년 21.4%이던 것이 1936년에는 29.6% 증가한 반면, 1927년 유대인 자녀 입학비율은 13.3%에서 1934년에는 8.25%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특정 인종의 학생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어 개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한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기여입학(대학동문, 운동선수, 유명인사, 대학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 자녀의 입학 등) 제도가 확립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1960년대 초, 미국에서 민권운동 및 사회운동이 활발해진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며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도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미국 입학사정관제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국 대학지원생에게 요구되는 서류(한국에서도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를 살펴 보자.

\* 출신자 고교와 거주지역, 고교특성에 대한 고려는 최근 교과부의 전국 고교에 대한 수능성적 공개와 더불어 고교등급제로 귀결될 수 있다.

\*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부모의 인종, 직업, 학력, 가족사항에 대한 명기가 대학입학에서 적극 고려될 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학연, 연고 관계가 적극 고려되는 관행에서 입학사정관 개인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러하듯 학생 개인의 잠재력, 성장가능성, 능력에 대한 종합적 검토라는 명분 아래 합격, 불합격의 객관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현재 금기시되는 기여입학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 특별활동, 수상경력, AP 과목 이수 등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

\* 고교 교사들이 수많은 학생들의 추천서를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속에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들이 사교육기관을 통해 작성됨으로써 사교육비 추가로 귀결된다.

\*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성적 및 수능성적이 좋아야 하므로 학생들은 내신, 수능, 특별활동, 수상경력 쌓기 등 삼중, 사중, 다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경쟁, 입시경쟁을 완화하여 우리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을 더욱 옹졸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오성숙(고문)

(개정증보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치학

##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김용일 지음 | 2009년 8월 10일 | 560면 | 34,000원



지방교육자치의 정치·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교육행정의 민주화'라는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한편,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민주화'(중간 목표)와 '보통교육단계의 교육기본권 강화'(궁극적인 목표)가 제도 개편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래 어떠한 정치과정을 거쳐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 단행된 제도 개편은 물론 제(前)교육적 동기에서 비롯된 이명박 정부의 지방교육행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담고 있다.

## 김용일 시리즈

### 위험한 실험

2001년 3월 20일 | 13,000원

'문민정부' 시절에 시작된 3.31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 이해를 도모하여 개조해 있으며, '소비자주권'을 앞세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부정하는 등 교육의 민주주의적 조건을 말살해왔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 교육의 미래

2002년 9월 25일 | 15,000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와 대학에 교육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편집자주〉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2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을 질을 높이는 데 필

요한 교육예산 부문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학부모 입장에서 미리 살펴봅니다

# 내년, ‘학교만’ 더 가난해진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의 66.2%에 불과한데, 교육예산은 삭감되고...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교육에서는 수능성적 공개와 외고 폐지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 흐름은 각종 법안 처리 과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차하면 학부모의 지갑이 더 얇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내년 교육 예산, 올해보다 감소

지난 9월 28일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쓰임새는 올해보다 2.5% 늘어난 291조입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1.2% 감소합니다. 전체 살림살이가 증가하였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만’ 그렇습니다. 예산은 12개 분야로 나뉘서 집행됩니다. 이 중에서 R&D, 보건복지, 문화체육, 환경, 국방, 일반행정 등 10개 분야 예산은 늘었습니다.

줄어든 분야는 단 두 군데, 산업 분야와 교육입니다. 감소폭은 각각 10.9%와 1.2%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산업 분야의 예산은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하면 6.5% 증가입니다. 산업 전체 예산은 줄어들지만, 어디 빌려주기 위해 준비해놓는 돈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늘어나는 겁니다. 즉, 산업 분야의 각종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돈은 올해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예산이 적은 분야는 교육 뿐입니다. 전체 살림살이가 커지고 다른 11개 분야의 형편도 조금이나마 나아지는데, 오직 교육만 팍팍해집니다.

## ◆◆◆ 교과부는 괜찮고, 학교만 가난할 예정

하지만 교과부가 운용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내년 교육예산 37조 7천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조 8천억원과 나머지 5조 9천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돈은 올해보다 2.5% 줄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5조 9천억원은 6.4% 증가하였는데, 이 돈은 교과부가 직접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가난해집니다. 같은 교육예산이지만, 교과부가 운용하는 돈은 많아집니다.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가는 돈은 줄어듭니다. 뒷선이 쓰는 예산은 늘어나지만 현장은 팍팍해지는, 익숙한 풍경이 재연되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 감소폭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가지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로 들어오는 돈 중에는 지자체가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물가는 오릅니다. 따라서 실질감소폭은 교부금 감소율 2.5%보다 많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 세금이 덜 걷혀서 그렇다는데...

이명박 정부는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중의 일부가 학교로 들어가는데, 세금이 적게 걷히면 자연스럽게 학교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줄어드는 2010년 세수 규모를 23조원 정도라고 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이 감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세금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 학교가 가난해지는 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의 지갑은 두둑하게 만들면서, 학교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한 셈입니다.

덕분에 ‘학부모는 봉’이라는 격언이 또다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가정과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하던 것도 줄여야 합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빌립니다. 그래도 어려워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합니다.

다행히 교육청과 학교에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긴축재정의 손길은 각종 사업비 등에 먼저 갑니다. 급식 지원이나 학비 지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학부모 지갑에 기댁니다. 수업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의 66.2% 정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보수세력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교육은 모르겠지만, 초중등교육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충분하니, 더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즐겨 사용해왔던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근거로 듭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공부담 공교육비는 GDP의 3.39%로 OECD 가중평균 3.35%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은 국가별 수치를 단순평균한 게 아니라 실제 비용을 합산한 다음에 구하는 값입니다. 그동안은 단순평균(OECD average)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가중평균(OECD total)이 보다 정확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 수준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호 차관이나 몇몇 교수들은 교육재정이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분모가 적으면 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만 가지고 보면 신기루가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의 GDP 대비 비율은 우리가 3.39%로, 룩셈부르크의 3.34%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2009 OECD 교육지표>에 활용된 국민 1인당 GDP는 우리가 23,083 미국달러 PPP로, 룩셈부르크 75,754 미국달러 PPP의 1/3 수준입니다. 비율은 비슷하나, 절대액은 차이가 큰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GDP 대비 비율’ 뿐만 아니라 절대액수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컨대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가 나옵니다.

##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미국 달러의 PPP)

초등교육		중등교육	
아이슬랜드	8,941	스위스	11,590
미국	8,887	오스트리아	10,094
덴마크	8,615	미국	9,905
오스트리아	8,128	덴마크	9,461
스웨덴	7,692	프랑스	8,759
스위스	7,681	아일랜드	8,710
이탈리아	7,525	스웨덴	8,489
영국	7,165	네덜란드	8,482
벨기에	6,811	이탈리아	8,285
일본	6,283	벨기에	8,283
아일랜드	6,139	아이슬랜드	8,166
핀란드	5,845	영국	8,120
네덜란드	5,727	일본	7,466
스페인	5,596	핀란드	7,465
호주	5,223	스페인	7,457
프랑스	5,161	호주	7,201
포르투갈	5,135	캐나다	6,898
독일	4,663	포르투갈	6,842
헝가리	4,356	독일	6,564
뉴질랜드	4,287	한국	5,713
한국	3,883	뉴질랜드	5,232
폴란드	3,719	체코	4,818
체코	2,921	헝가리	3,767
슬로바키아	2,799	폴란드	3,365
멕시코	1,681	슬로바키아	2,574
		멕시코	1,817
OECD 단순평균	5,848	OECD 단순평균	7,273
OECD 가중평균	5,868	OECD 가중평균	7,173

※2009 OECD 교육지표를 가공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 반영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3,883 미국달러 PPP로, OECD 가중평균의 66.2% 수준입니다. 중등교육은 5,713 미국달러 PPP로, OECD 가중평균의 79.6%입니다. 우리보다 적은 국가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예산은 절대적으로 더 확충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육재정의 규모라 하더라도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선입니다. 이렇게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비용이나 시설비 등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에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급당 학생 수는 35명 정도입니다. 학교를 더 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이나 ‘교육경쟁력 강화’ 등 뭐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줄입니다. 4대강에 6조 7천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교육예산은 4천억원 줄입니다. 4대강 예산이면 200억원짜리 학교 330개를 신설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다가오는 예산 심의의 계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 부자감세, 지방교육재정 빚더미

(2009. 9. 7 권영길의원실 자료)



작년 12월에 통과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부자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채가 유래 없이 증가할 예정이다. 올 예산에서 (-)성장률과 감세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지만, 2010년 예산에서는 4% 성장을 예상했음에도 부자감세가 현실화 되는 시기와 맞물려 지방교육 재정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 교육청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2008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원에 그쳤지만, 2009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무려 2조 1,316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7.8배나 늘어난 수치인 데, 2010년에는 4% 경제 성장률 예상에도 불구하고 1조 7,099

억원의 교육청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연평균 5,093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안정적으로 상환해왔다. 그러나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빚더미 지방교육재정이 이후에는 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예고되는 것이다.

## 교육재정, 부자감세의 직격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은 국세의 가장 큰 부분인 소득세 법인세 일부와 교육세 전액으로 이루어지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내국세는 경제사정에 따라 세입규모가 달라져서 불경기일 경우 세입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교육교부금의 규모와 직결된다. 결국 부자감세 정책이 본격화 되면, 교육재정의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두 교육파탄을 예고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향후 몇 년간 재정적자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함에 따라 지방의 교육 재정 파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건전하던 지방교육재정이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8배 가까운 채권 발행의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 교육 자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어려울수록 교육여건 개선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 있는 계층 즉 재벌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증세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교육과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강행, 교육복지예산 축소는 이같은 상식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역주행이다. 내국세 세입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 교육재정의 구조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교육에 돈을 안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명사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시급히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기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를 빚더미 위에 올릴 순 없다.

〈정리/송환웅〉

##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로 혈세 낭비하고,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는 나라...”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

밥 굶는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방학 중 급식비지원 예산을 깎는 나라... 그러면서도 2012년까지 부자들의 세금은 90조가 넘게 줄여주고, 4대강 죽이기로 22조가 넘게 쏟아 부우면서 굶는 아이들의 휴일과 방학 중 급식비 예산을 깎았다.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왜 부자감세를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와 사유를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지원학생의 인적사항과 재산사항, 가족구성원 등을 물으며 급식비의 지불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채권압류처분, 보호자 기출, 아빠 신용 불량, 실업자, 난치병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내야 급식비를 지원받았고 그 과정에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돈 내고 밥 먹는 아이와 돈 내지 못하고 밥 먹는 아이로 차별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는 2010년 예산에서 543.6억원을 삭감하

였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이라서 계속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좋아졌는지 묻고 싶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소남의원에 따르면 결식아동수가 2005년 2만3천58명에서 2009년 9월말까지 9만6천578명이 결식아동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경기지역 결식아동이 약 420%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2곳을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7년 628,841명, 2008년 686,559명이었다.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8,579명, 2009년 현재 268,751명이다. 이에 따라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방학 중에 굶게 될 4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원)을 편성했고, 또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9만 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원, 예비비 등 109억원)을 편성해서 2009년 여름방학에는 총 54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추가로 지원됐던 25만명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25만명의 아이들이 굶게 생겼다.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가장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미래를 책임지고 갈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이다.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는 평등성을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 잘살고 못사는 차이와는 별개로 모든 아이들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계속되는 민생위기, 소득격차 확



**배옥봉**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대와 신 빈곤화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시혜적인 차원에 무료급식 때문에 차별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밥 굶는 문제를 가장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친서민 정책이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법률 개정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주지회

학교 겁내지 말자. 출판기념회 (10월 6일 / 꿈꾸는 교실 도서



학부모강좌 / 사교육 없이 내 아이 우뚝 세우기  
(10월 7일 / 지회 사무실 2층)

나주지회

개미장터 열리던 날 (10월 24일 / 청소년수련관)



광주지부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 (10월 13일 / 의재미술관)



동북부지회

인문학강좌 '교과서엔 없어'  
(10월 18일~ 8회연속 / 쌍문동 대우아파트 관리소)



목포지회

미디어교육(10월 22일 / 목포교육청 대회의실)





부산지부

4대강사업중단, 생명평화 기원하는 시민행동의 날  
(9월 20일 / 사상구 강변공원)



수원지회

회원 만남의 날 (10월 13일 / 시루봉 청산)



안양준비위

안양준비위원회 발족식  
(9월 21일 / 안양시 만안 여성회관)



상주지회

소모임 참꽃놀이터-갑장산 나들이 (9월 12일 / 갑장산)



안동지회

어린이 글쓰기대회 (10월 17일 / 안동댐 물박물관)



양주지회

성폭력예방교육 (10월 22일 / 회천3동 주민센터)





## 고양지회

## 두드림, 울림, 신명

10살을 맞이한 흠마음, 고양지회 풍물소모임

## 도장에 얹힌 사연

고양지회 풍물 소모임 '흠마음'은 다소 생소한 이름을 갖고 있다. 풍물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1998년이었고 그때는 이름이 없었다. 그저 풍물모임이란 이름으로 매주 만나오다가 황명숙 회원의 남편이 손으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도장을 새겨주었다. 채상소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쪽에 들어가 있고 한자로 '토심(土心)'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도장이었다. 누군가 우리 모임 이름을 토심을 풀어쓴 '흠마음'으로 하자고 했고 그 이름을 가진지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다.

## 21명의 두드림

흠마음은 매주 수요일 다른 풍물패의 연습장을 빌려 모임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남의 집 살림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얻지 못했을 시절도 있었다. 때로는 호수공원 회화나무 아래에서, 때로는 노래하는 분수대 터에서 얼어붙은 땅을 딛고 추위에 살이 터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일산병원 옆 공원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친구삼아 뽕과리를 두드리기도 했다. 그렇게 물 흘러가듯 서로를 보

듬어주고 삶을 나눈 세월이 10년이란다.

흠마음은 처음부터 참여한 회원이 있는가하면 6개월전에 난생 처음 북을 두드리다 10주년 기념 공연 무대에서는 신참 회원까지 모두 21명이 모인다. 1기는 김애경 모임장을 비롯해 6명(박병희, 이현숙, 박이선, 황명숙, 한경희, 장은정)으로 각기 개성이 충만하지만 모여 있으면 소리 없이 흘러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 2기는 6명(정미숙, 배진숙, 김희정, 장미련, 박선경1, 박선경2)으로 '따로 또 같이' 어울린다. 3기는 2년 먼저 모인 4명(김영주, 조난주, 이하영, 전진옥)과 6개월 전에 모인 4명(김양완, 허은주, 박명희, 정유경)을 합해 8명이 열정을 뽐어내는 에너지와 같은 특징이 있다.

이들은 11월 6일 저녁에 처음으로 무대에서 공연을 갖기로 하고 지금 맹연습 중에 있다. 1기와 2기가 섞여 있는 김동연류 설장구팀은 장구가락의 현란함과 함께 장구춤의 아름다움을 연마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3기와 6개월 전에 합류한 4명의 신참이 함께 양북놀이를 준비하며 10명의 북소리의 울



림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기와 2기 일부는 삼도의 사물가락 중에서 정신번쩍 들게 하는 가락만 모아놓은 삼도사물놀이로 신명나는 한판을 꿈꾸고 있다.

## 풍물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21명의 회원들에게 흠마음은 고향 같고, 가족 같고, 휴식 같고, 삶의 에너지원이다. 이 나이에 풍물을 배워 예술의 경지에 오를 것도 아니고 그저 풍물소리가 필요한 곳에서 두드리고 울림을 나눌 수 있다면 족한 그들은 풍물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풍물소리에 빠져드는 수요일이 일주일의 분수령이 되고 수요일의 에너지로 또 일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풍물소리 언



저리로 아이 키우는 이야기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없으며 비슷한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10년을 한결같이 자유로를 달려 일산으로 오는 장이환 선생님(놀이패 울력 대표)이 흠마음을 처음 만난 날 “장구와 함께 자유로워주세요”라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몰랐다. 이만큼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말 뜻을 조금 알아 듣게 되었다. 흠마음에게 10년이란 세월이 주는 의미가 남다른 이유다.

고양지회 흠마음 박이선

## 생활글

## 사랑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인 큰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걱정이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아이는 좀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늘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기도 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을 쳐 보기도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아이는 한결같이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히 성적을 받아왔고 나는 아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이지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치고 올

라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지금 몇 등급을 받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분명히 1등급으로 올라 설 거라고 굳게 믿고 그것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 아이의 성적과 관계없이 아이 자체를 믿고 사랑하는 것, 성적이 썩 좋지 않아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격려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었다. “그래, 우리 아이를 성적으로만, 공부로만 평가하고 남과 비교해선 안 되지, 얼마나 가능성이 많고 사랑스러운 아인데...”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다시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보였다. 인터넷을 보고 세상소식을 알려줄 때 예전처럼 한심하게 보이지 않고 ‘저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 건강한 사회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동생들 따뜻하게 잘 챙기는 것을 보고는 ‘너석, 참 잘 컸네.’ 하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요즘 또 내 지병이 도져 슬금슬금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정신 좀 차려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거지? 이



Q&A  
상담실

## 이런 저런 일로 학교와 마찰을 빚는 고1 아들

아이의 실수나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Q 고1남자아이다. 담임이 아이들에게 떠드는 아이 이름을 적어 내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 이름이 많이 나왔고, 담임이 한 달 간 야자를 하지 말라고 했다. 또 한 번은 친구와 야한 쪽지를 돌리다 여선생에게 걸렸는데 너무 심한 내용이라 다른 선생님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그 일로 학교에 불려갔다. 아빠와 나는 사춘기 남자 아이들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친구를 괴롭힌 일이 있었다(아이는 장난삼아 2~3번 했다고 한다). 상대 아이가 싫다는 얘기도 없어서 계속한 모양이다. 담임이 알게 되어 피해 아이에게 그때의 심정을 글로 써서 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죽고 싶다고 썼다고 한다. 일이 커져서 학교폭력으로 학년 부장에게 사건이 올라갔고 조사도 받았다고 한다. 조사 중 출신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징계 경력이 있는 지도 알아봤는데 흡연 지도 1건이 있다고 했단다.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다 하는 거라 학교나 어른 앞에서만 피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일까지 경고 3건이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상대 아이 부모가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교내 봉사 2주를 받았다. 이 일로 우리 아이가 과외선생님에게 죽고 싶다고 했다. 아이 아빠는 아이를 엄하게 훈육하는 편이라 아이와 잘 맞지 않는다. 내가 아이를 달래고 사정도 하였고 아이도 느낀 점이 있는지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던 중 그저께 머리가 길다고 걸렸고 조금만 자르고 갔더니 또 걸렸는데 그냥 학교를 나와 버리고 나에게 전화를 하여 자퇴를 하겠다고 했다. 결국 그날 밤을 PC방에서 보내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들어와서 자퇴하고 공고의 자동차학과에 가겠다고 하는 걸 간신히 설득해 냈다. 내일 담임과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받은 상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꼭 얘기하고 싶다. 만약 아이가 받은 상처, 엄마가 정신과 치료 받은 것 등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선생님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

A 아이와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네요. 먼저 심한 내용의 야한 쪽지를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별일 아닌 듯싶지만 그것을 목격한 교사들을 심하게 당황하게 만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리 장난이었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이 그 일로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죽고 싶다고까지 표현을 했다면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코 가볍게 장난으로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학교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든 학·폭대책자치위든 부모님과 학생의 진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고 하니 학교 측에 이 부분이 간과됐음을 말씀하십시오.

두발 문제는 많은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학생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학교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어머니가 아이를 잘 이해시켜 주셔야겠습니다.

학교와 마찰을 일으키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아이를 괴롭힌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징계도 받게 되고 소위 '문제아'로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낙인찍혔을 것이고 본인 자체도 학교생활을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꺾였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이 인생의 큰 오점이 되지 않고 한 때의 실수로, 성장의 밑거름으로 되려면 우선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종의 형사적 문제인 학교폭력문제를 학교 측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임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울러 볼 때, 학교폭력 사실을 접한 담임과 학생부 교사들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임교사가 떠드는 아이가 누군지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것인지, 그 일로 인해 한 달간이나 야자를 못하게 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가장 중요한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도 아이가 하루 빨리 안정을 찾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학교와 적대관계를 갖는 것보다 학



교와 관계를 잘 맺고 아이가 편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선 학교에서 처리하시고 잘 되지 않을 때 상급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내일 담임선생님과 면담 하실 때 감정을 앞세우는 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두루 상담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지도 할 것이니 선생님도 관심을 갖고 대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니 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진다면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는 그동안의 일로 마음의 상처도 받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힘들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를 잘 설득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제공 : 학부모상담실

대로 가다간 정말 변변한 대학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할 텐데... 어떻게 하면 공부 좀 열심히 하게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이런 조급하고 초조한 생각을 하다보면 아이에게 하는 말들에 고스란히 담겨 되새기기 싫은 창피한 말들을 내놓게 된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좀 사귀면 안 될까? 그래야 너도 자극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말에 아이는 금세 안색이 바뀌며 “그러면 친구를 내 필요에 따라 가려서 사귀란 얘기에요?”하고 반발한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느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다는 말 따위가 다 아이에게는 곧갭게 들리는 모양이다. 곧바로 후회된다. 공부 잘하는 친구만이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아니까... “그래 하기야 나도 어릴 때 엄마가 친구 가려서 사귀란 말을 했을 때 참 싫었던 기억이 난다”하고 꼬리를 내렸다.

또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가야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네가 사귀게 될 여친의 부모님에게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첫 관문이 대학이름이더라”하는 말을 하면서는 ‘내

가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런 말은 좋은 대학에 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이의 마음에 콤플렉스를 심어주는 말이잖아? 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원..’ 대학의 서열주의가 우리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에게는 그게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요즘 나는 무척 게으르다. 일을 잔뜩 두고도 인터넷으로 못보고 지나간 드라마를 찾아보며 몇 시간을 보낸다. 발에서 뿜아다 놓은 무는 일주일이나 방치해놔다가 무청을 받아 버렸다.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어서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고 아무리 내게 말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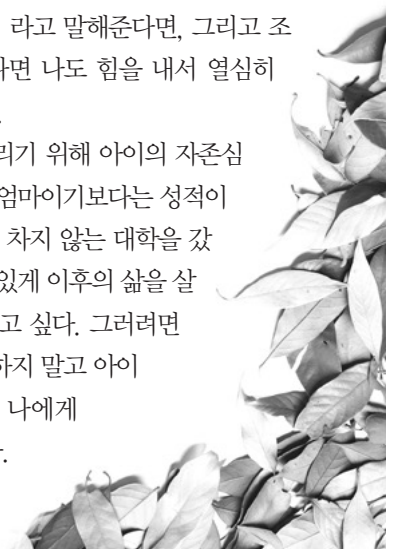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할 일을 제때 열심히 안하면서, 내가 나를 어찌지 못하는 일이 많으면서 아이에게는 왜 너 자신을 다그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고 못마땅해하는 나.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나에게 누군가가 “너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어?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맘

만 먹으면 엄청 잘 할 텐데 얼른 맘을 먹고 열심히 해봐.”한다고 해서 즉시 털고 일어나 열심히 부지런히 할일을 하게 될까? 그것보다는 “너 많이 지친 모양이구나, 그래, 많이 힘들겠다. 일은 많고 그 많은 일을 혼자 하려니 얼마나 힘들니? 좀 쉬어. 일 좀 못하면 어때? 일 못해도 게을리도 널 사랑해, 힘 내”라고 말해준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들어준다면 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싶어질 것 같다.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아이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짓밟는 엄마이기보다는 성적이 좋지 않아 내 욕심에 차지 않는 대학을 갔어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러려면 아이의 성적을 사랑하지 말고 아이를 사랑해야한다고 나에게 자주 타일러줘야겠다.

고유경(상담원)





# 하루의 3분의 2를 책상에 앉아있는 그들... ‘진정한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재는 아직도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내가 학교 다닐 적만 해도 초등학교땐 영어학원이라기 보단 간단한 종합학원 정도를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더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이나 세 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등의 교육열이 너무나 뜨겁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옛날보다 더 입시경쟁이 심한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참교육학부모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느낀 참교육학부모회에 계신 분들은 진정한 참교육을 위한 부모요, 어른들이었다. 지금의 입시제도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개개인의 다양성과 강점을 발굴해내고 교육이란 단순히 책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미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무엇일까. 요즘의 학생들을 보면 참교육이 아닌 그저 대학교육이다. 목표는 오로지 대학이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어찌할 줄 모른다. 수능 때까지는 무조건 문제풀이와 개념정리뿐이다. 하지만 대학의 교육은 그것과는 다르다. 대학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의 경험에만 비추어 봐도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들께서 시킨 발표라곤 해도 고작 몇 마디 하는 것에 그쳤다. 그것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들뿐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가고 나서는 발표의 방식이 360도 달랐다. 내

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많은 청중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내야 했다. 그래서 처음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건 선생님이 억지로 라도 시키는 공부는 대학교에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 초반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동기부여가 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 책만 읽고 문제만 풀지 그것을 말할 줄 모른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있는데 표현을 잘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라리 많은 사회경험을 통해 임기응변과 대처력을 높이고 또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또 금방 성숙해 진다. 책상에 1시간 더 앉아있는 것, 분명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억지로 앉아서 머릿속에 구겨 넣은 지식들은 그저 이름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한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전공조차 없이 성적에 맞춰서 가게 된 대학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자기와 맞지도 않는 전공에 억지로 맞춰서 자기의 꿈과 미래를 결정해 버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에 대학진로는 수능 성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나는 학생 때 꾸준히 했던 봉사활동들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 내가 하고 싶은 사회복지로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결정에 한 번도 후회를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주변에 몇몇 친

구나 후배들을 보면 분명 시험 성적에 맞춰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 세자리 숫자가 우리들의 미래를 좌우한다. 세자리 숫자로 결정된 그들은 결국 현재에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알아보고 있다. 이 젊은 시기에 얼마나 아까운 순간인가. 아무리 대학 간판이란 게 중요하지만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생일까? 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린 희생양들이 아닐까 다들.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모든 시간을 칠판과 책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들. 그들 손가락엔 펜으로 생긴 굳은살이 박혀있을 것이다. 굳어진 살을 만지면서 어떤 이는 씩씩하겠고 어떤 이는 만족할 수도 있다. 다들 어른이 되어 그때 그 열심히 공부하던 추억을 되새기겠지만, 그 추억이 아름답다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거다. 어른이 되어 내가 진정으로 즐겁게 웃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 자문해보면 머릿속에 이 걱정 저 걱정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지만 학생 때만큼은 세상 걱정 모르고 자유분방하게 마음을 열고 다닐 자격이 있다 생각한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가 항상 유쾌하고 동경할 만 하지는 않구나 느끼기 전에 그들은 좀 더 자신의 청춘을 만끽할 필요가 있다.

이용진(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yonghg1@nate.com

## 쉼터



## 군말산책 5



최기중(목포지회)

### 물수제비

영산강 하구에서  
아내와 함께  
무릎을 낮추고  
물수제비를 땀다.

바람 없는 날에  
송어, 날치, 망둥어 뛰노는 강구에서  
백자갈, 흑자갈이며 조약돌이  
무딘 강물을 희롱하면서  
물결무늬 파문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햇빛 창창한 날에  
하늘로 차오르는 돌팔매들  
살림살이 토닥거리던 양금들도  
물 위를 툭툭 뛰어가고 있었다.

세상살이 무료한 봄날에  
아내와 함께  
무릎보다 낮은 자세로  
물수제비를 땀다.

### - 군말

물수제비, 둥글납작한 돌을 물 위로 던졌을 때 그 튀기는 자리마다 생기는 물결 모양을 물수제비라 한다.

동네 저수지나 바닷가에서 물수제비 놀이를 많이 했다. 물가에서 둥글납작한 돌을 던지면 수면 위로 물결 모양을 일으키며 조약돌이 달렸다. 이렇게 물수제비를 뜰 때는 최대한 몸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힘껏 던져야 한다. 그래야 조약돌이 날렵하게 표면을 차면서 중력으로 달려 나간다.

신혼 때 아내와 함께 영산강 하구에 갔었다. 그때는 잔물이 드나들었는지 모치(송어 새끼)들이 시커멓게 떼 지어 반짝 비늘을 보였고 망둥어도 팔짝팔짝 뛰었다. 물가를 거니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다. 아내도 조약돌을 집어서 물수제비를 땀다. 그런데 조약돌은 포물선을 그리며 그냥 물속으로 퐁 빠졌다. 아내는 왼손잡이었다.

내가 나서서 물수제비를 땀다. 날렵한 흑자갈을 골라서 몸을 낮추고 휘 던졌더니 조약돌이 종종종 달려 나간다. 아내도 내 몸을 흉내 내며 물수제비를 땀다. 그러나 왼손잡이라 그런지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조약돌은 번번이 물속으로 쳐 박히기 일쑤였다. 어쩌다 운 좋게도 한두 번 뜨기도 했는데 아내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물수제비는 자세가 낮을수록 멀리까지 나갔다. 백자갈이 강물을 희롱하면서 물결무늬 파문을 일으킨다. 어떤 것은 햇빛에 반사되면서 하늘로 차올랐다. 살림살이 토닥거리던 양금들도 수면 위를 툭툭 뛰어 간다. 하지만 물수제비를 뜨는 조약돌의 운명은 똑같았다. 어떤 것은 한 번도 뜨지 못하고 물속으로 쳐 박혔고 어떤 것은 척척 잘도 뜨면서 물방울을 튀겼지만 그래도 종말은 같았다. 모두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인생도 물수제비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기중(목포지회)

213호부터 쉼터 코너에 최기중 회원의 군말산책을 실었다. 최기중 회원의 시집 『나무 위의 여자』에다 군말을 덧붙여서 부부 사이를 조명한 글이다. 군말은 사전 뜻으로 '쓸데없는 말'이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갈 말'이기도 하다. 이 쉼터를 통하여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쯤 생각해보다.



# ‘학교 겁내지 말자’ 학교생활, 어떻게 도와줄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부모들은 학교가 매우 겁난다. 어디에서도 학교에 대해 가르쳐주지도 않고 학부모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겁날 수밖에 없다. 기껏 학교에 대한 정보는 학교에서 듣기보다는 선배 학부모인 옆집 아줌마를 통해 듣게 된다. 아이의 학교생활 적응도 신경 쓰랴 학교에 대한 정보도 얻어들으랴 이래저래 마음만 졸인다.

내가 아이 둘을 키우며 학부모로 살아보니 학교와 관련된 사실을 조금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학교는 더 이상 겁나는 곳이 아님을 알고 이 책을 쓸 자신을 얻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해 학습적인 능력이나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기를 바란다. 이때 학부모들은 아이의 특성이나 개성을 파악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조력자의 역할이 아이의 욕구나 흥미를 앞질러 남들보다 뛰어나야한다는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면 아이 스스로 해나가는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가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아이가 움직이게 하기 보다는 아이의 친구관계나 학교생활, 선생님과 관계, 수업시간의 집중도 등을 파악하고 아이가 적응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다.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경쟁의식만 앞세웠다가는 아이도 학부모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는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이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방법은 없는 걸까?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무한경쟁 교육에서 최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아이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코 학부모의 경제력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한다.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사교육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정부 정책은 더 가혹한 경쟁을 강요하는 풍토에서 학부모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할까?” (『학교 겁내지 말자, 46쪽』)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두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한다.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혼만 내’ 하며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같은 사람이 부모도 되고 학부모도 된다. 아이와 잘 통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자 다짐했지만 학부모가 되는

순간 아이보다 앞서서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고 아이의 꿈은 잠시 보류해두어야 한다고 믿게 되면서 아이와 갈등이 시작된다.” (『학교 겁내지 말자』, 89쪽)

[학교 겁내지 말자]는 총 4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는 학교생활,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주제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무엇을 도와주어야할지, 학부모가 되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의미 있는 방학보내기, 학생회 활동이 주는 의미,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갈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학교를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나는 것이다.

박이선(고양지회 회원, 공동저자)

서평

시온고 교사 박영종

## ‘즐거운 국사수업’을 읽고

저자 김은석 선생이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 ‘서태지’가 떴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다. 하지만 서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에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왜 ‘발해’를 꿈꾸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까? 그 답이 바로 이 책 안에 있다. 문화적인 코드를 놓치지 않고 늘 학생과 소통하는 노력의 결실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즐겨 봤을 굵직한 굵직한 역사 드라마(해신, 주몽, 이산, 태왕사신기 등), 즉 사극을 역사 기술과 연관 지어 설명해줌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는 점이 돋보인다. 신화 속의 해모수를 한나라에 맞서 싸우는 고조선 유민들로 조직된 저항군의 지도자로 그린 드라마 <주몽>을 통해 할머니가 미주알고주알 옛날이야기 들려주시는 듯 전개해나가는 책 속에 슬그머니 젖어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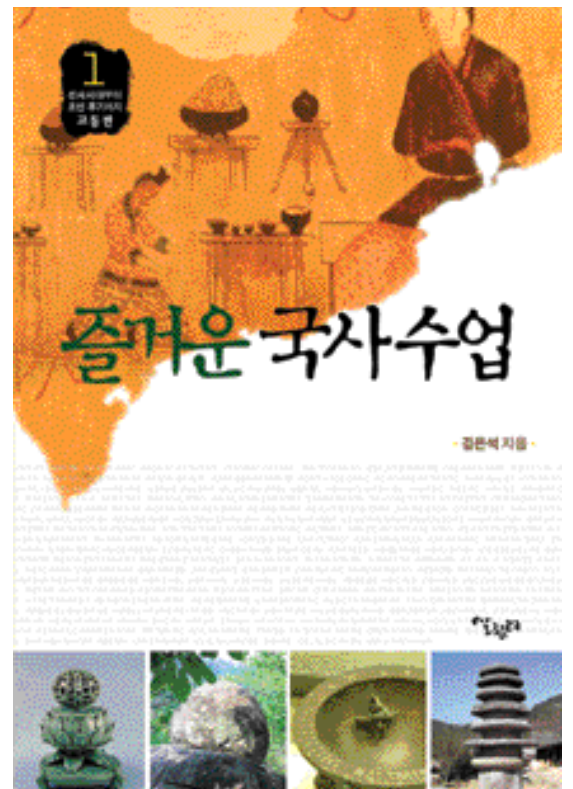
백제 중흥을 이룬 성왕을 이은 무왕에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은 이 책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서동요’와 관련된 배경 설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화공주와 무왕의 사랑이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통해 비추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

빙성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KBS 역사스페셜’에서 선덕여왕을 비롯한 진평왕의 세 딸을 다룬 부분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으로 사책적 덕의 딸인 왕후와 진평왕의 공주인 부인이 섞여서 표현된 인물이라는 저자의 분석은 ‘역사스페셜’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역사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치하는 내용을 백제 발전 과정과 접목시킴으로써 독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재미를 더해주는 책이 ‘즐거운 국사수업’이다.

공부 방법은 학습자 스스로 선택해야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1:1 학습법이 아닐까? 이 책은 책을 매개로 하여 교사와 일 대 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귀와 눈, 머리가 한 번에 열리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역사 학습서라 부르고 싶다.

문제가 마치 수업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신선함을 준다.

이 책은 저자의 평소 모습처럼 반가우면서 미소 짓게 한다. 사람을 먼저 알아서인지는 몰라도 이 책 안에 친절하고 진지한 역사 교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하여 또한 즐겁다.

수업은 재미있어야한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수업 가운데서 적극적인 모습을 띤다. 대한민국 역사의 무게를 좀 더 진지하면서도 무겁지않은 양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성실하게 한 저자의 모습을 여기에 조금이나마 옮겼다.



# 쉬운 말을 쓰려면 용기를 내야한다

사업가 최모씨는 7년 전에 처리했던 회사의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50만 원 가량의 종합 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란 최씨는 세무서에 찾아가 세금을 매긴 사유를 알아보았고, 그 당시의 거래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분명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무서의 업무 착오 때문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냈다. 그 후 3주일가량 지나 최씨의 집으로 '이의신청 결정서'가 날아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주문: 이 건 이의 신청을 각하 결정합니다. 이유는…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으로 본 쟁점 금액은 이미 기간 경과하였기에 고지세액 직권 정정함.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직권 시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서를 읽은 최씨는 자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지, 아니면 안 받아들여져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해석이 안됐다. 결국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만 했다. 결론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최씨가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무려 여섯 번의 전화 통화를 시도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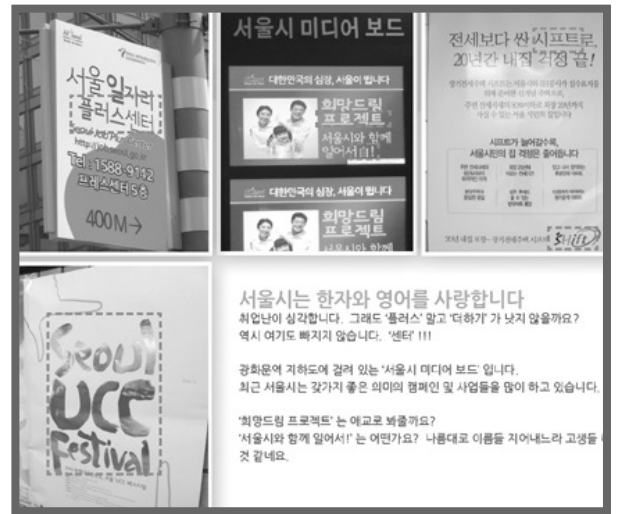
최씨가 당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술하게 많다. 사전과 공문서에만 등장하는 어려운 한자어들, 그리고 각종 광고와 상품 이름, 사용 설명서에 등장하는 영어단어는 고등학교를 나온 일반인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어려운 말이나 글을 보고 듣는 사람은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감을 가지게 되고, 그 뜻을 알고자 남에게 물어볼 때 문화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지식의 정도, 교양의 정도는 매우 자주 말과 글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1979년 영국에서 출발한 '쉬운 영어 쓰기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은 공공기관에서 쉽고도 뜻이 분명한 영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도 시키며, 이 운동의 정신에 들어맞는 문서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인증표시도 붙여준다. 어떤 할머니가 관공서 영어가 너무 어렵다며 항의하다가 유명해지면서 이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데, 이제 관공서에서는 문장을 만들면 할머니들에게 먼저 가져가 검사를 맡는다고 한다. 이 운동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나라와 비영어권 나라로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쉬운 말 쓰기 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펼쳐 2009년 7월말까지 339개의 법령을 개설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부랑인'이나 '노숙인'이라는 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없애기 위해 '홈리스(homeless)'라는 영어 단어로 바꾸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영어가 한자어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의사소통하는 일이 민주주의와 주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단어를 자주 섞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말하길 꺼린다는 점이다. 튀고 싶은 우월감이나 뒤지고 싶지 않은 피해의식이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주제를 흐리멍덩하게 만들고 소통을 곤란하게 하며 자신을 신비의 보자기로 가린다. 반면 어떻게든 쉬운 말로 말하려는 사람들은 남과 정면으로 소통하려는,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용기를 갖고 있고, 그 용기 덕분에 남들과는 다른 노력



을 한다.

미국의 어

느 과학학

술발표장

에서 어려운 수학적 하나 없이 쉬운 말과 자료로 우주관측 결과에 대한 발표를 끝낸 후 그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수학적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몇 시간의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해야 할 노력이었다.”

이 말을 옮겼던 김주환 박사가 받은 감명만큼이나 깊은 감명이 내게도 밀려온다. 말은 남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다.

※이 글은 월간 [사과나무] 10월 호에 실린 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정책위원)

## 교육부는 스스로 공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 용인 1고 사설학원 강사 초빙 방과후 수업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1고등학교는 국비로 지원된 1억3천만 원으로 서울 강남의 사설학원 강사들에게 '사교육 없는 학교'의 수업을 맡기기로 했다.

용인 1고교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학년생을 대상으로 강남의 사설학원 강사 5명이 학교에서 영어와 수학 교과와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1등급을 잡아라' '독해 구문 필살기' 등 영어 3강좌, 수학 3강좌가 개설되었고 수업을 신청한 170명의 학생들은 9교시~11교시를 이용하여 강남의 학원 강사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자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월 20시간 강의를 조건으로 강사들에게 시간당 10만~15만원씩, 월 20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수강료의 20~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는 학생들 부담이다.

학부모들이 학교 내의 사교육이라는 지적을 하자 학교 관계자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의견조사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학원 강사를 초빙해 강좌를 개설하면 사교육을 상당 부분 학교 안으로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기대와 달리 학생들의 참여 신청은 저조했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개설 예정 강좌와 강사 프로필을 올려놓고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는 수강 대상인 1~2학년 전교생 998명의 20%선에 불과했다.

학교 측은 수강 신청 마감일 하루 앞두고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자 2~3교시 수업을 하지 않고 1~2학년 전체 교실에 학원 강사들의 프로필과 강의내용이 담긴 홍보 동영상 상영하여 강제로 시청토록 했다. 특히 5~6교시에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별도로 컴퓨터실에 모아 놓고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수강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방과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귀가 시키지 않겠다"며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종용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생각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수업시간에 강사들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 것은 맞지만 결론은 된 만큼 보충수업을 할 예정"이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첫 시행을 준비하다 보니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파행적인 교육 방침과 운영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설 학원 강사들이 버젓이 교내에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교사들도 있다. 학생들의 실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교당국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전 교생의 수업을 중단한 채 학원 강사들의 홍보 동영상을 보게 하고 수강 신청을 받는 파행적인 학교 운영은 교육부 스스로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매우 실망스런 처사이며, 학생들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세는 아니다. 또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국비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미선(용인지회 정책실장)



사설

수능성적 공개 파동과 외고폐지 논란

대책 없는 수능성적 공개로 교육계가 별집을 쑤서놓은 상태다. 그러더니 외고폐지 논란으로 또 다시 야단법석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사건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맹목적이고 비교육적인 경쟁 이데올로기가 논란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좌충우돌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극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그렇다.

먼저 수능성적 공개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보수언론과 합작하여 강행한 비교육적 처사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하여 순위가 밝혀지면, 좋은 싫든 학교 간에 학업성취도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서열의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교육 전체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단순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줄곧 수능성적 공개 반대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외고나 자사고 등의 부자학교 정책을 고수하는 한 수능성적 공개는 득보다 실이 많다. 점수 따기 경쟁력이 높은

아이들을 한데 모아놓은 자사고나 외고와 여타 학교간의 순위 경쟁과 공개가 교육적으로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었듯이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학교정책의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다. 100m 달리기 시합에 비유하자면, 자사고나 외고가 일반계고보다 50m 쯤 앞에서 뛰어 1등에서 30등까지 독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능성적 공개 파동과 외고 폐지 논란이 만난다. 그것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이번과 같은 식의 수능성적 공개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점수 경쟁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사고나 외고 같이 점수 경쟁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공개된 수능성적은 자사고나 외고가 “불공정 경쟁의 주범”이며 잘못된 학교정책의 상징이라는 점만을 확인시켜 줄뿐이다. 수능성적을 공개하여 학교 간 경쟁을 촉진시킬 요량이었다면, 적어도 자사고나 외고 정책 폐지라는 전제조건만큼은 충족시켰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고 폐지론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외고가 “사교육비 유발의 주범”이니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인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는 외고 교장들을 향해 “외고는 마녀가 맞다”고 결기를 세울 정도였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교육과학기술부는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외고를 폐지 대신 자율형 사립고나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부자학교 키워주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가설에 집착하여 불법적으로 수능성적을 공개한 ‘죄’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대통령 지지율 제고에 목매는 정권의 실세들은 외고가 사교육비 유발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폐지하자고 하지만 첩첩산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래저래 학생과 학부모만 죽을 지경이다. 이것이 교육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 정권의 실력이다.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장은숙  
편집위원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장은숙 전은자 한유나  
주소 (우)100-11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수석부회장 송환웅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감사 임영희 서경자 정복순 상담실장 박부희 정책위원장은운숙 교육자치위원장은전은자 조직위원장은최주영 언론정보출판위원장은송환웅 상근자 심정숙 원소영		
서울지부	02)3491-5235	지부장 최정화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박현미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최정화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중
경기지부	031)236-0002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4-3958	지회장 정영미
	용인지회 031)281-7969	지회장 정용훈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수원지회 010-9196-2075	지회장 정연훈
	김포지회 019-622-5333	지회장 노계향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김영숙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1-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0-9599-0658	지회장 김한중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2-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김승진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16)9882-2870	지회장 김정숙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대구지부	광양지회 019-622-5333	위원장 이희정
	053)751-4070	지부장 양승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고영호
경북지부	017-511-9143	지부장 신현자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신현자
	칠곡지회	지회장
	구미지회 010-2366-1365	지회장 김성희
	상주지회 019-289-0839	지회장 김영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지회 010-7580-8796	지회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장귀령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최양희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배경희
	사천지회 010-2225-8384	지회장 박영옥
	김해지회 010-3359-9579	임청현
	거창지회 010-3867-6607	지회장 유수상
	밀양지회 010-9955-0148	지회장 하정훈

자문위원회 ● 이규환(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지원(법률사무소 청치 변호사)/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삼(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춘(변호사)/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새물심리 상담 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정초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



소원을 빌어보세요!  
동전을 넣을 때마다  
아이들의 미래가 밝을거예요!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재정 자립도를  
100%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비로 100%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재정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참교육을 살리는 저금통”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교육을 살리는 저금통”을 회원님 가정과 이웃에 하나씩 배치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저금통이 눈에 뜨일 때마다 동전이 굴러다닐 때마다 돼지를 배불려 주세요.  
저금통에 회원님들의 정성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이 지향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수거방법 : 송금 택배 또는 입금

신한은행 : 100-014-533161 / 예금주 참교육학부모회

택 배 : 서울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연락번호 : 02-393-8900 총무국

## 참교육을 살리는 특별회비 납부를 요청합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교육학부모회.

우리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알뜰히 운영하고 있지만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특별회비를 건고자 합니다. 물론 동의하는 회원만 납부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 금액 : 자율적  
☞ 방법 : CMS 자동납부

동의하는 분들은 본부나 해당 지부지회에 연락주세요.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실 때는 이름/지회/금액/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부사무실 : 02\_393\_8900 총무국장 : 010-2211-9914  
이메일 : hakbumo@chol.com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학교,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학교생활 지침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기획하고  
십 년 넘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선배 학부모가 시시콜콜 들려주는 학교생활 안내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학교에서 폭력이나 입원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에 내야 할 돈과 내지 않아야 할 돈은 무엇인지,  
학교일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기본지식을 비롯해 자세한 학교 생활 안내서, 학부모가 되는 길을 보여준다.  
학교, 하는 만큼 보인다! 무학대고 불안해 말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내 아이를 입학시켜 버리면, 그렇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순진한 다짐을 했던 엄마였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입학이라는 참된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엄마의 입장이 되어보고, 아이들은 정말 알아지고... 아, 어떤 좋은 일인가?  
완전한 저지 일고 길을 찾아보자. 책 속에 길이 있다지 않은가?  
\_김미희(영남대)

학부모는 학교를 잡내고, 학교는 또 학부모들을 잡낸다.  
두려움은 관계를 망친다. 겁내지 않으려면 서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긴박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교에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_최재철(한양대)

참교육학부모회 기획 = 박아심·홍수정 지음 · 12,000원

